

漁港은 거대한 역동적 힘을 지닌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시설되는 構造物이므로 施工에 아무리 완벽을 기한다 하여도 被害發生 우리가 상존할 뿐 아니라 조그만 피해라도 이를 早期發見 보완하지 않을 경우 큰 피해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나, 현재의 어항 개발 사업은 防波堤 등 외곽 시설의 확장에만 주력하고 있어 어항시설 維持 補修費가 크게 부족하며 소규모 어항은 그나마 유지보수비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항 시설 유지보수비를 총예산의 20%범위까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항시설비 책정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이 每年 市道에서 物量 配定 要求를 받고, 이를 중앙부처에서 임의로 조정하여 책정할 것이 아니라 시도에서 年次別 漁港 開發計劃을 수립보고하면 중앙부처에서는 이를 검토 조정하여 각 시도의 어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계획에 의거 사업물량을 배정하여 주는 것이 어항개발 사업을 보다 계획적으로推進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貴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항개발에 대한 좋은 조언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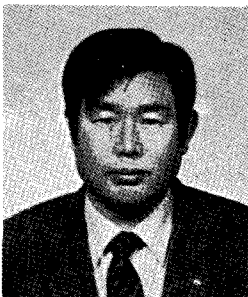
오늘날의 漁港은 水産業 近代化와 더불어 漁業의 根據地로서 漁獲物의 流通基地일뿐아니라 漁村地域 經濟發展의 中樞의 基盤이며 또한 漁船의 安全受容과 油類, 船漁具 等 船需品의 安定的 供給, 洛島漁民의 交通과 通信 等 各種 機能施設을 갖추고 地域社會의 經濟圈, 生活圈 中心의 基盤이 되고있다.

水産廳 資料와 經濟社會開發 第6次 5個年計劃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指定管理하고있는 漁港數는 1,941個港인데 그중 水産廳長이 指定 管理하는 1·3種漁港은 61個所, 市道知事가 指定 管理하는 2種漁港(地方港)은 325個所, 漁港法과는 無關하게 市長郡守가 指定하여 管理하고 있는 漁村部落단위의 群小規模 漁港이 1,555個所이다.

이들 漁港中 86年末까지 漁港基本施設을 完工한 漁港數가 523個港으로서 完工率은 26.9%에 不過한 實情이며 第6次 經濟社會開發計劃('87~'91) 期間中에 4,181億 원을 集中投資하여 未完工中인 1,481個港의 漁港基本施設을 完成할 計劃이다.

이러한 時點에서 晩時之歎의 感은 있으나 韓國漁港協會가 水産廳 傘下團體로 新設되어 새政府 出帆과 함께 88년부터 本格的인 活動을 開始하여 落後된 우리나라 漁港基本施設의 擴充과 漁港의 先進化에 새로운 轉機를 마련한 點에 대해 水産人의 한 사람으로서 慶賀하여 마지않는 바이며 本協會가 漁港施設工事의 新工法 및 改良工法の 普及을 위한

## 새 施工法·資材등 소개 群小漁港에 關心을



金 昇  
〈莞島郡水協 專務〉

우리 나라의 漁港 행정은 解放後 60년대 초반까지 海務行政의 一元化로 海務廳에서 管掌하여 그 指定 및 開發을 담당해 오다가 農林部職制가 改編되면서 農林部所管으로 移管되었으며, 1966년에 農水産部 水産廳이

發足되고 1969년에는 漁港法(法律 2106號, 69.5.19)이 制定 施行됨으로써 漁港의 指定과 施設 및 管理業務가 體系化되어 漁港施設建設事業이 本格的으로 推進될 수 있는 轉機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調査研究, 情報交換과 弘報活動의 一環으로 專門誌인 漁港誌가 지 季刊으로 發刊할 計劃이라고 하니 이제까지 疏外당해 왔던 南海岸 淺海海藻養殖漁民들로서는 그에대한 期待가 자못 클 수 밖에 없다.

每年 颱風이 來襲하면 反復되는 群小漁港破損과 그에따른 漁船被害는 그렇지 않아도 모든 水産施策이 企業漁民 爲主로 展開되는것 같아 恒常 疏外感을 느끼고 있는 우리 南海岸 淺海海藻養殖漁民들에게는 甚한 갈등을 갖게 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비록 群小 規模의 漁港이 漁港法과 無關하고 島嶼開發促進法施行과 關聯하여 이제까지 水産廳所管으로 推進해온 群小規模 漁港建設事業이 內務部로 移管되었

다 할지라도 今般 本格的인 業務를 開始할 漁港協會는 漁港法上의 指定漁港에만 關心을 두지말고 今後 그늘진 곳을 解消하고 疏外當한 階層의 被害意識을 拂拭시키는 데에도 力點을 두기 바란다.

漁港은 우리 漁村의 核心的인 生産基盤施設이다. 颱風만 來襲했다하면 常習의으로 被害를 입고 있는 要因을 根本的으로 除去할 수 있도록 堅實한 施工 方法, 施設 資材의 開發 普及과 合理的인 群小漁港 構築事業, 推進方案等을 提示하여 投資의 效率性과 地域漁民의 努力負擔이 調和를 이루어 淺海海藻養殖漁民들의 疏外意識과 自然災害로부터 被害를 極小化시킬 수 있는 一翼을 擔當해 주기 바란다.

수산업의 근본인 넓은 어장과 풍족한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그에 못지않은 신어항축조 및 개발 사업, 신조선증대와 어로장비개발, 원양어업의 해외진출, 증양사업 등 실로 나열하기 어려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수산 당국 관계자들에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더 고마움을 느끼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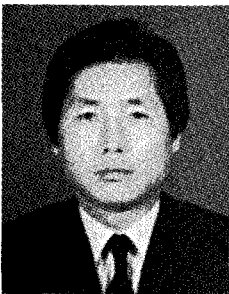
제가 어항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종사해온 어항축조사업에 대한 조그마한 경험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바다와 가까운 곳에서 출생하여 어렸을때부터 바다와 같이 꿈을 키워왔고 그리하여 어항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70년 4월 건설회사를 설립, 사장이하 모든 종사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항시설사업에 앞장 서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2,000년대의 경제대국에 발맞추어 우리 어항사업에 많은 기회와 여건이 주어 지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항사업은 수산업당국에서 이미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어업을 완전 자동화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어항시설사업에 따른 시설물이 해마다 우리 나라를 경유하는 하절기 태풍으로 흔히 유실되고 어선이 파손되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가져오므로 이에따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

## 計劃사업早期에 完工 既存施設 더 補強토록



배 정 문

〈합자회사 영생토건사·전무〉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태고때부터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이 많은 터라 수산업을 영위해 오

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근세기의 어느 국가보다 변천과정이 다양하다고 하겠다.